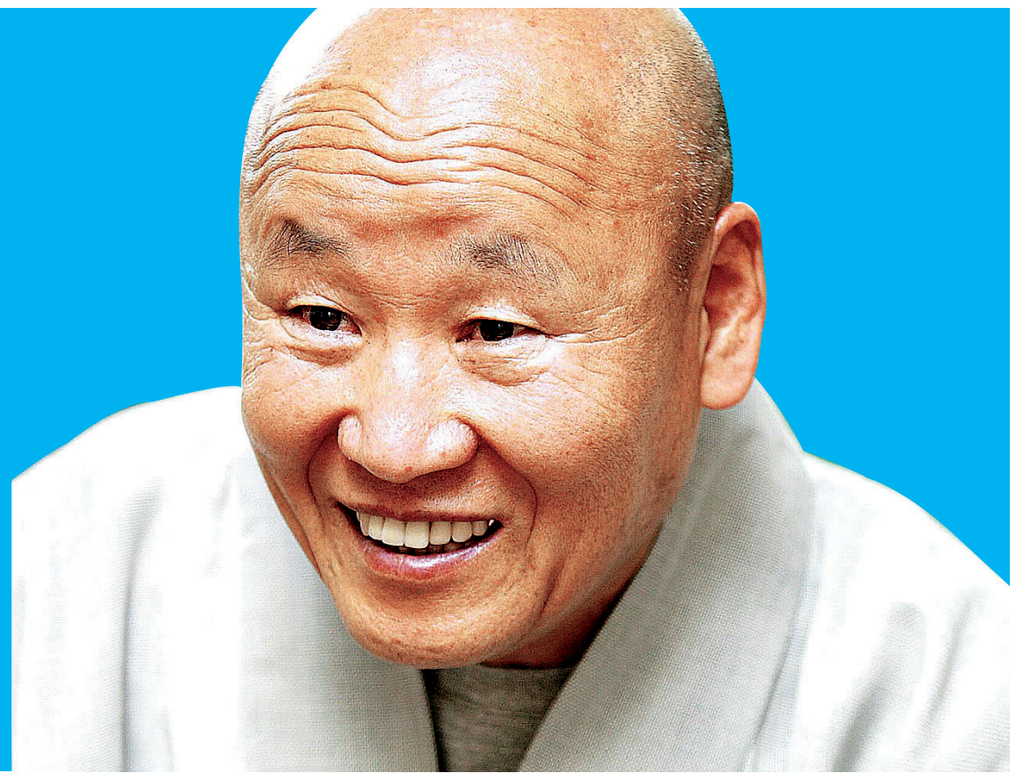
“수시로 일어난 번뇌 쳐부수고 차단하는 것이 불교적 수행”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



지난해는 유난히도 다사다난 했다. 국가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 촛불집회로 이어진 정권 교체, 포항 지진 등 큰 사건들로 들썩였다. 불교계에도 지난해에는 승려들의 성추문으로 한때 스님들의 위상이 추락하는 등 온통 악재들이 연달아 터지며 위기감이 고조됐다. 한마디로 어려움의 연속이다. 이제 다시 밝아온 2018년 무술년 새 아침에는 희망이 우리곁으로 성큼 다가올까? 그리고 산중서 수행하며 혜안을 지니신 선지식들은 지난 위기를 돌파할 해법을 알고 계실까? 2016년 단일 사찰로는 드물게 11채의 1인 무문관인 ‘두타선원’을 운영하며 후학들의 용맹정진을 독려하고 있는 묘허 스님을 구랍 27일 찾아가 친견했다. 그리고 여쭈었다. 실추된 승풍 진작과 한국불교의 침체 탈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단양 방곡사=김주일 기자

▲지난해 한국불교가 많이 침체돼 있다고 회자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밖에서 겉으로 볼때 교세나 외형은 침체 됐어도, 보이지 않는 깊은 산중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스님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불교는 말로만 아름답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언행일치나 지행일치가 돼야 합니다. 말한바 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지요. 설령 침체됐다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 맡은 임무와 책임을 다 하려고 노력하다보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점점 불교가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왜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왜 공부하는지 근본 이유를 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를 왜 공부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불교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기복적으로 시작하는데, 이들중 불교가 가장 수승한 것은 불교 외의 모든 종교는 타력 신앙, 구원의 종교이지만 불교는 자력신앙이자 자각의 종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성을 깨달아서 견성 성불한 후에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교는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나 대신 내 영혼을 구제할 수 없어 자력적이지요. 스스로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영혼이 생사윤회서 해탈하는 것만이 내 영혼을 구제하는 것, 그것이 불교를 공부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평소 법문 하실때 업(業)에 대해 강조하시는 걸로 아는데, 우리는 업 짓는 행위 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가 업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 자체가 업이지요. 보통 업이라 하면 일반 사람들은 악업, 죄업 등 부정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업도 분명 업이지요. 과보가 다를뿐이지요. 선업은 선복, 악업은 악복을 받습니다. 생사의 근본이고 윤회의 근본인 이 업을 짓지 않으면 윤회가 끝나는데, 중생은 업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업을 지어가면서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윤회를 벗어나 영원히 대해탈 하기 위해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럴수록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야 업의 굴레에서 훌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굴레서 벗어나는 길은 해탈하는 길 뿐입니다.”

▲우리는 일상서 번뇌망상을 내려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비결을 알려주시지요.

“불교의 수행은 태양이 24시간 쉬지 않고 빛과 열을 항상 비춰주는것과 같죠. 불교의 진리는 알고 보면 낮을 낮이라고 해도 반 밖에는 모르는 것이고, 밤을 밤이라고 해도 반 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구름이 끼거나 눈비가 오면 중생들은 햇빛을 못봅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름이 빛을 차단하는 것뿐이지요. 구름만 벗겨지면 밝은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번뇌고 망상인데, 그것을 내 생각인줄 아는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일어난 번뇌를 쳐부수고 차단하는 것이 불교 수행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신이 싸우는 작업이 수행이지요. 싸워서 이기려면 상대를 쳐부숴야 합니다. 그 무기가 화두, 염불, 주력 등입니다. 일어난 망념을 쳐부수고 생각을 일지 못하게끔 화두, 의심 하나로 모으는 것이 수행이고 참선입니다. 이것만 하면 번뇌망상이 소멸됩니다.”

▲무문관 수행은 사실 한국불교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수행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일 사찰로는 무문관 운영이 힘드실텐데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신지요?

“선원장 스님과 의논해서 무문관인 두타선원을 지을때는 발심한 스님들이 들어가서 목숨걸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행문화도 점차 자꾸 바뀌지만, 옛날에 선방에 다니던 수좌 스님들은 발심해서 목숨 걸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용맹정진에 들었습니다. 하면된다는 것은 공부에 대한 발심,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지요.

우리 두타선원에는 집이 열두채 있는데 처음 만들 당시에는 6년 용맹 결사를 꿈꿨지요.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9개월 수행 정진을 하는 도량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뜻대로 안돼 지금은 시대 상황에 맞춰 3개월로 줄였습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단양 방곡사가 운영중인 무문관인 ‘두타선원’ 전경

> “어느곳에 머무르더라도, 자기의 본래모습을 잃지 않고 항상 자기 본연의 모습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처념상정”

▲새해를 맞아 욕심을 내려 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욕심은 더 새록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지요?

“우리가 참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힘들죠. 스님들도 수행에 욕심이 있어야 하듯이, 사회인들도 자기 생활에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욕을 버려야 하지요.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 분수를 지킬 줄 알면 자연적으로 과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본분 밖의 것을 탐하다 보면 그것이 곧 과욕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스스로의 능력과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은 과욕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자기가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후회없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는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관계 만큼 힘든게 없다고들 합니다. 관계에서 상처 받고, 분노가 치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지만 사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는 인정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노가 일어날때는 스스로 하심하고 나를 낮춰 상대를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만복이 옵니다. 항상 상대를 이기려고 하니까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굽힌다고 하면 존재감이 없어지고, 업신 여김 받아 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정 반대입니다. 나중에는 상대방이 심하게 상처준 것을 다 알아주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하심이 다 빛나게 돼 있습니다. 죽는 가운데 살 도리가 있듯이, 지는 가운데 이기는 도리가 있습니다.

▲스님도 화가 날때도 있으실텐데, 그런 감정을 어떻게 억누르시는지요?

“내가 30세 일때 귀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만 해도 성적이 좀 못됐고, 작은 것에도 시비를 잘 하고, 도반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참지를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날 나 혼자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렇게 사니 가까운 도반들이 하나 둘 떠나갑디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아니면 상대인데, 상대 인생을 관여하느라고 내 시간 빼앗기고 내 공부 못하는것보다 더 큰 손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는 절대로 남의 인생에 간섭 안하겠다고 다짐했지요. 일단 남의 인생에 관여 안하면 화날 일이 안생기고 조금 참고 져 주면 나중에는 분명 존경받습니다. 부부간에도 상대 인격을 존중해주세요. ‘우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즉 울타리란 뜻도 포함돼 있지요. 너와 나를 얼거놓고 감싸 안는 것이 우리입니다. 상대방에게 들어갈 공간을 찾지 말고, 당신을 품어줄 공간을 내가 만들어 줍시다.”

▲마지막으로 새해 우리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가르침이 있으시면 들려 주세요.

“처념상정 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곳에 머무르더라도, 자기의 본래모습을 잃지 않고 항상 자기 본연의 모습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처념상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불자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처념상정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수행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 몸에서 도향이 풍기고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자신을 지키고 처념상정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묘허 스님은? 1943년 경북 의성서 태어났다. 이후 1957년 상주 남장사서 한산당 화엄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63년에는 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했으며, 1965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이후, 성암 강백 화상 밑에서 대교이력 및〈전등록〉을 이수했다. 이후 통도사 보광선원 수선안거 이래 30여 안거를 성만했다. 1975년 은해사 말사 법주사 주지를 거쳐, 1979년 신탄진 신흥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는 신탄진 신흥사, 김해 원명사, 단양 방곡사 회주 등을 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총무원장 석 도 선

고 문 석 암 도

승정원장 석벽봉 승정부원장 석화담 승 정 석혜암. 석대원
원로부원장 석일우 원로위원 석법령. 석청산. 석우암. 석도명. 석정호. 석법산

총무원장 석도선 / 법계고시원장 석일두
교육원장 석남산 / 호법원장 석청강
기획원장 석보광 / 의전위원장 석명구
어 산 장 석도암 / 비구니회장 석혜담
총무부원장 석대공 / 수행부장 석보각 / 종무부장 석법민
총무부장 석도흥 / 사회부장 석종우 / 문화부장 석성원
감찰부장 석성보 / 사서부장 석성우 / 포교부장 석보현
조사부장 석성도 / 조직부장 석성각 / 연수부장 석성담
총무국장 석성덕 / 포교국장 석법정 / 종무국장 석성안
지원국장 석해인 / 포교국장 석성원 / 문화국장 석원각
봉사국장 석성호 / 의전국장 석균중 / 의식국장 석성혜
포교국장 석혜성 / 수행국장 석성탁
비구니부회장 석효성 / 비구니부장 석지현 / 비구니국장 석충효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정현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종단법인 운영이사 이사장 도선 수석이사 남산 체법 일두 성만 성우
운영이사 청강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수선화 성덕 의공 학산 법광 혜림 혜화 법수
종단전국여성신도회회장 수선화(정순옥)

■종단법률자문위원 변호사 : (明眞)김진우 | 법무사 : (雲虛)이익렬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 · 총무원장 석 도 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 회 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원명화 (윤영아)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 원 장 보연화 (유희연)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 임원
경남원장 도 혜 / 울산원장 법 광 / 경북원장 성 인 / 법사원장 목 암
충북부장 상 학 / 부산부장 혜 성 / 경기부장 자 운 / 전남부장 혜 명
구미부장 혜 진 / 대구부장 혜 련 / 청주부장 혜 원
경남국장 성 광 / 사업국장 정 명 / 포교국장 덕 운 / 종무국장 도 연 / 서울국장 명 덕
포교국장 청 운 / 통영국장 덕 인 / 포교국장 혜 림 / 봉화국장 혜 정 / 화순국장 보 정
삼척국장 혜 원 / 영천국장 원 명 / 통역국장 정 연 / 포교국장 혜 경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